

할렐루야! 박목사님 안녕하세요
재단 운영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덴버 순복음 한인교회 오세오 목사입니다
늘 이렇게 부족한 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섬겨주셔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저의 사역(Mission Report)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2015년

6월말 덴버에 부임하였습니다 (전임 박요한 목사)

후임으로 부임시 교회로 부터 아무런 사례나 지원을 보장받은 것이 없이 믿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후임목사에 대한 지원을 약속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러 있었습니다
당시 교인 13명, 순복음 본교회의 교세가 위축될대로 위축되어 전임목사 생활까지는 나름 유지되었으나
제가 부임시 재정상으로 어려워 향후 목사 사례비 및 주택등 관련 예산을 교회가 감당할 수 없었기에
후임으로 오면서 일체의 이사비용 등도 지원받지 않아 스스로 감당함
다행히 교회건물관련 모기지 페이먼트는 없고 보험이나 관련 비용만 지불하기에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임후에 교회에 딸린 본래 비거주용 사택에서 주거를 시작하여 지금도 그 상태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현재 교인이 18명이며 재정적인 호전은 없어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6년

현재 목사 거주 시설이 주거에 부적합하여 아파트를 빌려 나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교회의 재정상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목사 사례는 최소한 긴축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교회 유지를 하기에 빠듯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총회 상회비는 감당하고 있으며 선교에도 작은 소액이나마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저희 교회에 임할 줄 믿기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늘 큰 힘이 되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는 재단과 목사님들, 관련 사역자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오세오 목사